

바이스게르버의 소슈르 수용

안정오(고려대)

1. 들어가는 말

레오 바이스게르버(Leo Weisgerber 1899-1985)의 가장 큰 업적은 언어를 문화의 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초기부터 언어를 문화현상과 사회적인 인식형식으로 보고 접근하였는데 이는 그가 자라난 언어 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899년 그가 태어난 곳은 베츠(알사스 지방)라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때로는 독어를 때로는 불어를 배워서 사용해야만 했던 곳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그의 성장기에 이미 언어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빼져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수행한 평생의 연구는 언어를 문화와 민족의 결과물로서 연관시키는 것이었다.

일차세계대전을 사병으로 참전한 그는 종전 후에 바로 1918년 가을에 본 대학에 등록을 한다. 그곳에서 인도계르만어학, 비교언어학, 독어독문학, 로만어문학, 젤트학 등을 공부하다가 1921년에는 뮌헨에서 2년을 공부하고 1923년에 다시 라이프치히 대학에 청강을 한다.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한다(*Die Handschriften des Peredur ab Efrawc in ihrer Bedeutung für die celtische Philologie*, 1923, Halle/Saale). 1921년에서 1925년까지 본 대학에서 튜르나이젠 Rudolf Thurneysen, 웨르케 Wilhelm Meyer-Lübke, 마이스너 Rudolf Meissner, 좀더 Ferdinand Sommer에게 사사하고 교수자격논문을 제출한다. 이 저서의 제목 "*Sprache als gesellschaftliche Erkenntnisform*"(1925, 필사본)이 이미 언어의 특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며 문화와 연관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교수자격논문은 자신의 향후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곳에서 언급한 테마들에 관한 것들이 논문으로 다양하게 쓰여졌다. 예를 들어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1929), "*Deutsches Volk und deutsche*

Sprache"(1939), "Die Stellung der Sprache im Aufbau der Gesamtkultur"(1950), "Deutsch als Volksname"(1953), "Sprache und Gemeinschaft"(1955/56)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문들에 주로 영향을 준 이론은 바이스게르버 자신이 언급한 대로 주로 빌헬름 폰 훙볼트 Wilhelm von Humboldt이었고, 그 외에 에른스트 카시러 Erst Cassirer, 알프레드 피어칸트 Alfred Vierkandt, 빌헬름 분트 Wilhelm Wundt, 페르드낭드 드 소슈르 Ferdinand de Saussure 등이다. 그런데 특히 그의 기호관은 소슈르의 기호관에 영향 받은 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문에서 바이스게르버의 중요한 논저 세 권에 나타난 소슈르의 수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그의 교수자격심사논문 "사회적 인식형식으로서의 언어"(1925년)에 나타난 소슈르의 수용을 살펴보고 어떤 용어들이 차용되었나 고찰하겠다. 2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모국어와 정신형성"(1929년)에서 소슈르가 바이스게르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를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내용중심문법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중심문법의 기본원리"(1962년)라는 책에 나타난 바이스게르버의 기호관과 소슈르의 기호관을 비교 검토하여 소슈르의 바이스게르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겠다.

2. "사회적 인식형식으로서의 언어" 1925

바이스게르버의 교수자격심사논문 "사회적 인식형식으로서의 언어"는 약 200쪽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손으로 쓰여 졌다. 이 논문은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출판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가 향후 30년 동안 지탱해 나갈 중요한 학문적인 방향과 테마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바이스게르버가 이 논문에서 얼마나 소슈르의 전문용어나 언어학적 방식을 수용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바이스게르버가 자신의 교수자격심사논문을 제출한 때는 1925년이었다. 이 논문은 독일 본(Bonn) 대학에서 당시의 지도교수이며 인도계르만 학자인 폐

르디난드 좀머 Ferdinand Sommer에게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수용되었다. 제목은 “Sprache als Erkenntnisform”(인식형식으로서 언어)였으며 “Eine Untersuchung über das Wesen der Sprache als Einleitung zu einer Theorie des Sprachwandels”(언어 변천 이론에 대한 안내로서의 언어 본질에 대한 연구)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제목에서부터 언어를 사고나 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언어를 공시적인 관점에서보다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의 논문의 목차를 먼저 살펴 보면 논문의 대강을 알 수 있겠다:

일반적인 사실

제 1 부 : 언어적 사건의 전제조건 - 사회적인 인식형식으로서 언어

A. 심리생리적인 기본조건 - 개별현상으로서의 언어

- I. 생리적인 측면
- II. 심리적인 측면

B. 사회적인 기본조건 - 사회적인 대상물로서의 언어

- I. 언어동시대인
- II. 언어

III. 언어동시대인과 언어

C. 문화적이고 인식이론적인 기본조건 - 전체문화의 영역에서 언어

D. 부록: 생각하기에서 말하기로 가는 길 - 개개인의 말하기 행위

제 2 부 : 동적인 고찰 - 언어에서의 변천과 변천의 실현

제 3 부 : 인과적인 고찰 - 언어변천의 원인과 조건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4년 뒤에 “모국어와 정신형성”이라는 책에서 구체화된다. 그렇게 볼 때 바이스게르버의 내용 중심적 언어연구의 생각은 이미 자신의 교수자격심사논문을 제출할 1925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소슈르의 이름은 81번이 나온다. 이는 바이스게르버가 소슈르의 사상을 수용했던지 안 했던지 관계없이 이미 유럽에서 주도적인 언어학적 기안을 한 소슈르에 영향 받았음을 말해준다. 더 나가서 당시의 대작인 “일반언어학강의”를 66번이나 언급한다. 이는 이미 프랑스로 쓰여진 그 대작을 바이스게르버가 읽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소슈르의 전문용어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singe, signe linguistique, idée, différence, valeur, unité, entité delimitée,
phonologie combinatoire, image acoustique, mot incomplet, arbitraire relatif.”

이 외에도 상당히 긴 단락들을 소슈르 저작에서부터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20년대와 30년대의 바이스게르버 저작에서는 소슈르에 대한 언급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첫 번째 장인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곳에서 그는 소슈르의 랑그와 파를의 분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A II 장에서 바이스게르버는 낱말문제에 대한 소슈르 사상에 대해 언급하는데 거기서 그는 소슈르의 기호개념을 빌헬름 분트의 “Wortkomplikation”(낱말혼합)의 개념과 함께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소슈르의 중요한 개념인 “valeur”(가치)가 소개된다.:

“이러한 해설들은 절대 낱말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 이 것들은 어떤 방향에서 해결이 시도될 수 있는가하는 암시만을 주고 있다. 여기서 소슈르의 설명들은 매우 자세하게 고려되었다. 이것들은 그 문제의 올바른 측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바이스게르버의 낱말밭 이론이 소슈르와의 토론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바이스게르버는 낱말체계와 유사한 관계수단체계가 언어에서 경계 지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록 소슈르의 소개가 많은 비판을 야기시키지만 관계요소들의 보다 자세한 특징화를 위해서는 역시 소슈르에 기대어야 한다.”³⁾

B장에서는 “말하기”와 “말”(소슈르의 용어로 하면 이것은 ‘파를’과 ‘랑그’

1) Ehlers 2000: 53 이하 참조.

2) Weisgerber 1925: 59-60.

3) Weisgerber 1925: 60-61.

이다)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서 다시 소슈르를 만난다. 독어에서 “Sprache”와 “Rede”는 그렇게 큰 구별이 아니었다.

그리고 B II장에서는 “사회적인 대상물로서의 언어”를 규정하기 위해서 사회학자인 피어칸트를 언급하는데 언어의 체계변천에서 개인의 역할을 위해 소슈르를 인용한다.⁴⁾ 그러나 B III장에서는 소슈르를 하나씩 자세하게 지시하는데 거기서 그는 언어의 날말체계에서 공백이나 임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C장에서는 바이스게르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언어의 사회적 대상물의 개념이 언급된다:

“언어의 사회적인 특징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러한 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체계로서의 특징이다. 매우 상이한 형식 중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방향 지워진 언어연구가들과 철학자들이 — 이들은 모든 철학을 위해서 언어의 본질과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 다루었다. 나는 가장 깊은 곳으로 모든 인간적인 정신활동을 이르게 하는 연구들의 몇 가지 중심문제들을 여기서 약술하려고 한다; 추출된 문제들을 가지고 나는 상이한 연구가들의 해설에 진밀하게 접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점의 설정과 연구는 전체문제의 해설영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기서는 단지 언어적인 일들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만이 소개될 것이다.— 나는 우선 소슈르에 연결지을 것이다: 다른 문화재에 대하여 언어의 특별한 특징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호론의 영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⁵⁾

기호론에 대한 소슈르 인용이 2쪽에 걸쳐 나오고 있으며 바이스게르버가 행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해설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슈르와는 전혀 무관한 카시러의 상징형식에 대해서 언급한다.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스게르버는 교수자격심사논문의 약 5분의 1을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의 해석에 할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스게르버는 소슈르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 수용을 한다. 이를 엘러스 Ehlers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⁶⁾:

4) Weisgerber 1925: 123.

5) Weisgerber 1925: 154.

6) Ehlers 1990: 57 이하.

1)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는 독일에 10년 정도 늦게 수용되었다. 바이스게르버는 소슈르를 최초로 언급할 때 그가 파악한 언어학은 당시에 많이 토론된 에른스트 오토의 테마에 대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슈르의 이름은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의 작품과 깊은 토론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스게르버가 소슈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미 1925년에 그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울리히 틸로 Uhlig Thilo는 요스트 트리어 Jost Trier의 교수자격심사논문과 발터 폰 바르트부르크 Walter von Wartburg의 1931년도의 학술원 연설에서 밝혔다.⁷⁾

2) 바이스게르버가 읽어 가는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는 철저하게 비판적이다. 바이스게르버는 소슈르가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언어의 정확한 파악에서 나오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⁸⁾ 바이스게르버는 소슈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한을 함으로써 소슈르의 규정을 가정할 수 있다.”⁹⁾

“이러한 보충으로 소슈르가 말하는 것은 옳다”¹⁰⁾

“아무튼 소슈르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 멀리 가는 것이다.”¹¹⁾

바이스게르버는 자신의 교수자격심사 논문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용하는 것보다 소슈르를 상당히 선호하지만 거리를 두고 해석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시러와 홀볼트는 바이스게르버에게 든든한 학문적 뿌리였고 자신의 여러 가지 논저를 통해서 그는 확실히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철학적 자료로부터의 인용은 그의 연구를 다지기 위한 수단이지 그쪽으로 경도되지는 않았으며 철저하게 자신만의 언어학적인 접근방식을 구축하였다.

소슈르는 자신의 책 “일반언어학강의”에서 당시까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

7) Thilo 1989: 121. Trier 1931 그리고 Wartburg 1931 참조.

8) Weisgerber 1925: 7.

9) Weisgerber 1925: 124.

10) Weisgerber 1925: 54.

11) Weisgerber 1925: 122.

지 않았던 언어단위, 기호개념, 언어체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규정을 바이스게르버는 날말과 날말체계라는 개념으로 유도해 내는데 소슈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비평적인 해석을 가하여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서 소슈르는 언어유기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언어와 언어유기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스게르버는 대상체 언어와 유기체 언어를 구별하고 있다. 대상체 언어는 언어를 죽어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고 유기체 언어는 언어가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계이아를 가지는 유기체로 보는 시각이다.¹²⁾

소슈르가 남긴 가장 중요한 언어학의 업적은 아마도 언어의 체계와 언어의 사용인 랑그와 파롤의 구별일 것이다. 그런데 바이스게르버는 이 랑그와 파롤이라는 이원적 분할은 개인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단지 학문적인 접근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¹³⁾

소슈르는 언어를 사회의 생산물로 보면서도 그런 과정에 대한 사회적 접근방식은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소슈르는 언어를 기호로 보고 그 기호와 다른 기호를 동일한 선상에 옮겨 놓고 모든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기호로 간주 한다. 그래서 소슈르는 기호론에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데 바이스게르버는 언어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호적 형식들은 단지 부수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호의 기호는 언어이고 다른 것들은 기호의 하부구조를 이를 뿐이라는 말이다. 인간이 어떤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기호이지 다른 그림기호나 상징기호들은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는 말이다.¹⁴⁾

소슈르에서 언어기호는 개념과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슈르는 개념을 도출하는 감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이스게르버는 개념은 대상과 기호의 연결을 통해서 뿐 아니라 감각적인 인상을 통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⁵⁾ 자연어들을 보면 감정적인 관여가 생

12) Weisgerber 1925: 45.

13) Weisgerber 1925: 53, 56 참조.

14) Saussure 1967: 128 이하 참조, Weisgerber 1925: 155.

15) Weisgerber 1925: 49, 173 참조. Weisgerber 1925: 54, 56 참조.

각보다 훨씬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바이스게르버의 교수자격심사논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점에서 소슈르와 논쟁을 하고 있지만 3년 뒤에 저술한 그의 저서 “모국어와 정신형성”에서는 소슈르와의 논쟁을 더 이상하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의 논문에서 소슈르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인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25년 5월 23일에는 본 대학 강의에서 바이스게르버는 소슈르의 기호이론을 소개한 바 있다.¹⁷⁾ 1927년에 쓴 “의미론”(*Bedeutungslehre*)에 관한 논문에 소슈르의 책이 소개되고 있으며 1928년에 쓴 논문에 한번 소슈르의 책 “일반언어학강의”가 나온다.¹⁸⁾

많이는 아니지만 필요한 때 소슈르를 인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스게르버는 자신의 책 “모국어와 정신형성”을 쓰는 데 있어서 소슈르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의 이론을 수용했다고 쓰고 있지는 않다. 그는 오히려 학문에서의 외국의 영향은 당시 상황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문학의 영향은 전쟁이 끝난 첫 번째 해에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내가 공부하던 기간 동안에는 1916년에 발간된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가 입수된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페터 하르트만은 자주 소슈르는 자신에게 모순적으로만 보였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나는 소슈르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도록 배웠지만 어떤 낯선 체계에 대한 숙고의 요구하기 보다는 배우면서 스스로 얻은 직관이었음을 확인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¹⁹⁾

바이스게르버는 다른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언어학의 출발점은 소슈르가 아니고 독일의 학문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고 그에게 소슈

16) 바이스게르버의 교수자격심사논문에서는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가 32권 중의 참고문헌 중 하나로 매우 중요도가 높았던 반면에(소슈르라는 이름도 81번이나 나온다) “모국어와 정신형성”에서는 133권 중 한 권으로 참조되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17) 이것은 1964년에 비로소 발간되었다. 1964: 21, 24 참조.

18) Weisgerber 1928: 322, 324 참조.

19) Weisgerber 1934: 33.

르는 오히려 그런 자극을 확인해주는 존재였다고 말한 바 있다.²⁰⁾ 그러나 한스 글린츠 Hans Glinz는 바이스게르버의 이러한 입장과는 반대로 바이스게르버는 초기에 상당히 소슈르를 수용했고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 헬무트 기퍼 Helmut Gipper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다:

“바이스게르버는 프랑스사회학자이고 언어연구자인 듀르크하임, 마일레트, 소슈르의 논문을 1924년 인플레이션 후에야 비로서 접할 수 있었고 그들의 견해가 그에게 자극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얻은 견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²¹⁾

그러나 기퍼의 견해와는 달리 바이스게르버는 1924년에 소슈르의 저서 “일반 언어학 강의”를 완전히 입수하였고 매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신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썼다: “매우 교훈적이어서 보다 자세한 토론이 필요하겠으며 계속적인 논의를 위한 출구가 될 수 있겠다.”²²⁾

바이스게르버의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의 이론이 형성된 배경에 분명히 소슈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스게르버가 소슈르를 비판한다 해도 그 비판을 통해서 바이스게르버는 자신의 이론정립에 도움을 분명히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상호관계성을 그렇게 강하게 시인하고 있지는 않다:

“분명히 듀르크하임, 마일레트, 소슈르에서도 언어를 사회적인 사실로 보는 접근방식은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자극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극이 결정적이다: 문화변천으로서의 언어변천은 1923년 이래로 계획된 교수자격심사논문의 원천적인 테마였다. 피어칸트가 말한 필요, 성숙, 자극 같은 조건체들인 언어변천의 개별경우에 대한 심사숙고는 어떤 대상 및 언어의 사회학적인 기본 조건과 사회적 대상체의 적합한 취급방식으로 이어졌다.”²³⁾

20) Glinz 1983: 165.

21) Gipper 1984: 12.

22) Weisgerber 1925: 42.

23) Weisgerber 1961: 34.

이런 통시적인 시각은 바이스게르버의 초기 언어내용연구에서뿐 아니라 교수자격심사논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언어를 사회적인 산물로 보는 시각은 그에게 실제로 매우 당연했다. 더 나가서 바이스게르버는 문화재로서 언어를 파악하는 “일반언어학강의”의 방식을 동조하였다. 바이스게르버는 소슈르를 자신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 수용하였다. 소슈르는 언어의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했는데 이를 바이스게르버는 자신의 연구에 자극제로 수용했다:

“소위 의미변천의 연구로부터 나온 의미개념에 대한 생각이 — 이 생각은 후설, 카시러, 훔볼트를 다루면서 점차적으로 깊어졌다 — 그 접근방식을 형성 했음에 틀림없다. 여기서 분명히 소슈르의 인상 깊은 언급과 서술들이 강하게 작용했다.”²⁴⁾

바이스게르버는 분명히 소슈르의 “일반언어학강의”를 입수하여 전체를 다 읽었다. 그리고 그의 교수자격심사논문은 일차적으로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에른스트 카시러 Ernst Cassirer, 빌헬름 폰 훔볼트 Wilhelm von Humboldt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소슈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3. “모국어와 정신형성” 1929

1929년에 바이스게르버가 저술한 “모국어와 정신형성”이라는 책은 일종의 자신의 독백형식의 책인데 매우 빠르게 유명해졌으며 지금까지도 이 책의 영향은 지대하여 1969년에 일본어로, 1993년에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는 교수자격논문에서 주장한 언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문화와 언어라는 범주를 넘어서 언어의 능력, 언어와 교육, 언어학의 의미까지를 통틀어서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저술 방향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Weisgerber 1961: 34.

개인의 언어재 성능
 언어기호와 언어 내용
 모국어
 사회의 인식형식으로서의 언어
 언어와 민족
 언어능력은 인간됨의 특성인가?
 모국어와 정신형성
 언어교육의 문제
 언어학의 의의에 대하여

위의 목차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특히 언어기호를 언급하면서 언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낱말의 내용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 언어습득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색채어를 예로 든다. 색채란어론과 동일하게 어린이에게 강한 인상으로 수용이 된다(W. Preyer의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두 살 된 어린이가 400개 이상의 낱말을 구사하고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색채어는 매우 늦게야 습득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른 색채어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만 어느 색채어를 습득한다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어린이는 어느 시기에 일정한 시각인상에 대해 색채명을 언급하는데 이 때 그는 어떤 특정한 사물에만 그 색채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일한 색을 가진 사물들에도 색채명을 사용한다. 이는 개별인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 속에 결합되어 있지 않은 감각들을 포괄적으로 가지는 상위의 범주인 개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려면 그 어린이는 해당 색채명과 같이 또 다른 색채명도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²⁵⁾

낱말내용을 바이스게르버는 다음과 같이 공식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W = N \times B$. 여기서 W 는 심리적인 소유로서 낱말의 약자이고, N 은 심리적인 명칭, 낱말의 상이고, B 는 정신적 소유로서의 개념이다. 그리고 X 는 외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를 상호 제약한다는 말이다. 이는 낱말의 성능이란 이름과 개념의 모든 사용에서 통용된다는 말이다. 즉 명명과

25) Weisgerber 1925: 21 이하 참조.

이해가 동시 다발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상인데 내가 어떤 인상을 빨간색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성능이 아니고 빨간색이라는 낱말이 활동을 한 것이고 빨간색이라는 이름과 개념이 결합된 결과이다.²⁶⁾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시니피앙인 음성과 시니피에인 개념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은 소슈르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바이스게르버는 칭찬하고 있다. 이는 바로 소슈르의 그런 사상을 이 책에서는 수용하고 이용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직은 바이스게르버는 기호에 대한 생각에서는 소슈르의 생각을 따르고 있음에 틀림없다.²⁷⁾

그리고 그는 “모국어”라는 장에서 언어의 일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언어는 그에게 있어서 초기 작품에서처럼 문화의 한 산물이다. 하지만 언어를 하나의 “Sprache”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누고 있다:

- 말하기 *Das Sprechen*.
- 개인의 언어 *Der Sprachbesitz des einzelnen*.
- 어떤 공동체의 문화재로서의 언어 *Sprache als Kulturbesitz einer Gemeinschaft*.
- 인류에 일반적인 원리로서의 언어 *Das allgemein menschliche Prinzip Sprache im Sinne der für die Menscheit kennzeichnenden Sprachtaetigkeit*.²⁸⁾

원래 독일어에서는 “Sprache” 하나만이 언어현상일반에 대하여 사용된다. 기껏해야 “Rede”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언어현상을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언어의 실행된 결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화용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바이스게르버는 어디에서 이러한 언어일반적인 현상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했을까? 우리는 바로 소슈르의 언어구분방식에 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다. 소슈르는 이미 자신의 책 “일반언어학강의”에서 랑가쥐, 랑그 그리고 파롤을 구분하고 있다.²⁹⁾ 독어의 “Sprache”는 랑가쥐와 랑그

26) Weisgerber 1925: 27 이하 참조.

27) Weisgerber 1925: 34 참조.

28) Weisgerber 1925: 43 참조.

29) Saussure 1967: 15 이하 참조.

에 해당하고 “Rede”는 파를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파를에는 담화 *discours*라는 특수한 의미가 첨가되어야 한다. 또한 어휘 개념의 확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바이스게르버는 어휘의 개념들이 한정되고 확정되고 개인에 대한 그 타당성과 유용성이 생기는데 그 근거를 소슈르의 주장에 기대고 있다.

소슈르는 어떤 언어 수단의 통용가치는 다른 수단의 동시적인 현존에서 발생한다³⁰⁾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바이스게르버는 자신의 이론을 확고히하기 위해 받아들인다. 즉 푸른 색과 같은 색채개념의 한계설정은 노란색, 파란색의 경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gehen*, *eilen*, *laufen*, *springen* 등도 역시 다른 운동의 동사들의 동시적인 현존에서 제한되고 인식된다(후각, 미각에 대한 날말도 참조). 하지만 바이스게르버는 이러한 한계설정을 비록 소슈르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상호간의 한계설정은 소슈르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 일차원적 형태가 아니라, 대개는 이차원적 혹은 삼차원적 형태로 나간다”³¹⁾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스게르버는 “모국어와 정신형성”이라는 책에서도 소슈르의 일반 언어현상 분류법을 어느 정도 참작하여 언어현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었으며 어휘의 내용확정도 역시 소슈르가 사용한 가치개념을 설정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4. “내용중심문법의 기본원리” 1962

바이스게르버는 원래 “Vom Weltbild der deutschen Sprache”(1950년)에서 자신의 언어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은 “Die *inhaltbezogene Grammatik*”(1953년)과 “Die sprachliche Erschließung der Welt”(1954년)로 나뉘어 족서 출간되었다. 나중에 신판을 넬 때 각각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1962년)과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1962년)로 바꾸어서 출판을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권의 저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Die

30) Saussure 1967: 95, 159.

31) Saussure 1967: 58.

Erforschung der sprachlichen Zugriffe"(1956/57년), "Die wirkungbezogene Grammatik"(1963년),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1963년).

이 여러 권의 책 중에서 그의 언어사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저서는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지나간 언어이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데 특히 기호관이 그것이다.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이란 바이스게르버의 책은 약 430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형태 중심의 문법연구를 내용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빌헬름 폰 훈볼트에 대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서문

정신형성의 힘으로서 언어

언어적 세계관과 내적언어형식에 대한 훈볼트의 이론

에네르게이아적 언어고찰의 개신화

전체언어연구의 네 단계

모국어의 세계상

I 언어의 세계상의 연구

1. 언어적 중간세계의 문법적인 의식화
2. 언어적 세계 추론의 발견
3. 언어적 세계상의 실현의 통찰

II. 모국어적 중간세계의 의식화

1. 전제조건들

- a) 정신적 중간세계
- b) 언어적 중간세계
- c) 모국어적 세계관
- d) 언어적 중간세계의 구조법칙과 본질적 특징

중간세계

언어 내용

언어내용의 구조법칙

언어기호와 언어내용

언어내용의 규정성

인공기호와 자연기호

인간집단을 위한 세계의 정신적 처리

정신적으로 타당한 질서의 증거

언어포착의 방향성

밭의 법칙

내용규정의 다른 형태들

e) 언어중간세계의 확정의 해명가치

2. 내용중심문법의 기본원리

a) 언어내용의 연구의 역사에 대하여

b) 음성중심문법의 소견들

c) 음성중심적 확정을 내용중심인식으로 전환

의미론의 음성중심적 시도

기호론의 사물중심적 방법

내용중심적 고찰방식

III. 독일어의 내용중심 문법

1. 독일어 어휘의 내용적 구성

a) 독일어 낱말내용으로 가는 입구

낱말내용에 대한 음성중심적 조망

음성과 내용의 전체로서의 낱말

내용적 규정의 본질적 형식들

b) 낱말 내용의 기호적 규정

c) 낱말밭에서 내용적 규정

언어감각의 기본 원리

동음이의어

낱말밭에서 내용의 분절

낱말밭의 구성

분절의 층

일면적 밭

다층적 밭

남아 있는 주요 문제

순수 낱말밭의 증명

낱말밭의 언어내적 경계

낱말의 단위와 낱말밭

d) 내용중심적 조어론

음성중심적 조어론의 결과

낱말무리와 파생유형

파생의 내용적 규정

낱말계층

기간어의 부채꼴화

낱말밭과 낱말계층

여러 내용적 규정의 동음어적 낱말들

합성의 내용적 규정에 관하여

e) 내용적 규정의 다른 형식들

낱말집단

바뀐 낱말

생성과 소멸의 낱말

파악 불가한 낱말

완고한 낱말

f) 내용 규정시 모든 형식들의 종합작용

색채어의 전체상태

“*Verstoss*”의 낱말

낱말밭과 의의영역

2. 내용중심 문장론

a) 방법적인 서론

말 추가의 수단의 내용과 형식

음성중심과 유사 사물중심적 처리방식의 혼합으로서의 그 외의 문법

문법적인 전문표현의 역할

b) 내용중심 문장론

음성중심적 문장론의 지시

품사론의 사유영역

사고전환의 세 가지 단계

완전한 재고조사

현존의 전문용어와 평가 가능한 관점들

품사의 내용적 구성방향과 그것들의 지참형식들

사유영역으로서의 품사

문장조각에서 문장성분과 문장가치를 거쳐 문장분절로

문장조각

문장성분

문장가치

강조

문장분절

문구성안의 구축에 대하여

독일어문구성안의 확정

문구성안의 음성중심적 서술

문구성안의 내용중심적 서술

3. 독어 문법의 실질적인 형식

이 책에서 중요한 점은 어휘론, 조어론, 문장론에서 문법용어와 고찰시각이 모두 음성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고쳐 보려는 것이었다. 바이스게르버는 특히 이러한 시각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을 위해 훈볼트의 세계관 개념을 도입한다. 이 세계관 개념을 따라서 언어가 형성이 되고 내용은 물론 문법 더 나가서 문장에서의 구성안까지도 확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증명해 가는데 맨 먼저 어휘분야에서의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어휘분야에서 가장 초기적인 접근이 바로 낱말이고 그 각각의 낱말이 기호로 간주된다.

4.1. 낱말기호 – 정신적 중간세계

초기 작품들에서 바이스게르버의 기호관은 상당히 소슈르의 이론에 경도되어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중기작품인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에서는 고전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슈르의 기호관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소슈르는 이원적인 기호관을 주장하고 있다. 기호는 세상과 직접 만나고 불변적인 기호로 나타난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는 대상체와 기호의 만남이다. 종이의 앞뒤 면처럼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바이스게르버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 즉 대상체와 표상체 사이에 모국어적인 중간세계가 있다고 출발한다.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함으로써 그는 언어음성과 사물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해 고민을 한다: “언어음성과 일.물건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없애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니다.”³²⁾

그는 소슈르와는 달리 언어와 외부세계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음성형식은 언제나 정신적인 중간세계를 거쳐 외부세계에 연결 된다.

음성형식	정신적 중간세계 Geistige Zwischenwelt	외부세계
Baum Tisch	사고형상 Gedankengebilde	물건과 일의 여러 가지의 현상

가운데 있는 정신적 중간세계의 사고형상은 “정신적 대상에서 의식화된 존재의 장소와 형식을 음성형식이 공동작용함으로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사고형상은 어느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서 추출해 내어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보통 인간적인 조망형식이나 사유법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인간사유방식의 간단한 결과도 아니다. 이 사고형식은 현상 뒤에 있고 그 현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세계의 순수한 모순이라는 의미에서 이념의 제국으로 직접 옮겨질 수도 없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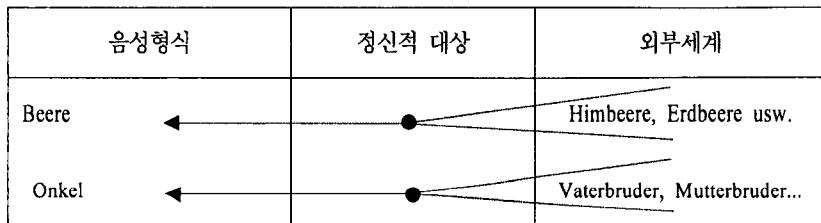
이 사고형상이 정신적인 중간세계이다. 즉 이것은 인간 오성의 방법과 결과인데 음성형식의 도움으로 의식된 존재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즉 그때마다 어떤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정신적 중간세계 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외부세계가 개별의식을 통해서 음성형식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음성 형식이 보면 인간적 조망 방식과 사유 방식과 만나서 외부세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음성형식과 존재의 세계가 인

32) Weisgerber 1962: 73.

33) Weisgerber 1962: 74-75.

간의식과 현상세계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³⁴⁾

바이스게르버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그려서 제시함으로 정신적 대상을 통해 외부세계가 음성형식과 만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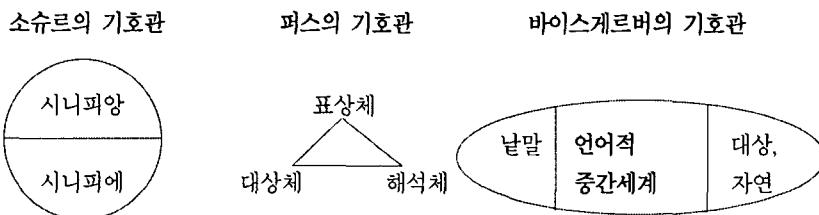
여기 있는 정신적 대상은 이미 다른 곳에서 완성된 정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주어진 규모는 아니다. 이러한 정신적 대상은 우선은 의식 존재와의 맥락에서, 즉 언어적인 음성기호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증명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언어에 나타나는 정신적 대상을 우리는 정신적 중간세계로, 언어적 중간세계로 보아야 하는 데서 증명될 수 있다. 더욱이 언어적인 음성형식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모국어에 속한다는 사실은 이것과 연관된 내용의 전체를 위해 어떤 모국어적 중간세계의 특징을 증명하는 결과로 우리를 이끈다:

소슈르는 기호를 이원적으로만 보았던데 반해서 바이스게르버는 기호를 삼원적으로 보고 있다. 찰스 샌더스 퍼스의 기호를 삼원적 기호라고 하는데 퍼스의 기호는 기호의 구성요소를 말하므로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가 각각 그 기호의 세 개의 꼭지점에 해당하고 이들이 바로 기호의 삼원요소이다. 그러나 바이스게르버는 기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호를 삼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소슈르의 이원적 기호는 퍼스에서 발전하여 삼원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고 소슈르의 이원적인 기호 현상은 바이스게르버에서 정신적인 중간세계가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삼원적인 기호관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슈르와 퍼스의 기호관을 다음과 같

34) Weisgerber 1962: 15.

35) Weisgerber 1962: 75.

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소슈르는 이원적인 기호관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전이나 종이의 양쪽 면처럼 대상과 기호가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퍼스는 기호를 대상과 표상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제삼의 상황이나 마음이 있어야 (소위 해석체) 그 기호는 기호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바이스게르버는 기호의 태생적인 측면에서 기호관을 설정하였는데 기호는 절대 대상과 표상체가 직접 만날 수 없고 항상 맑은 물이 항상 필터를 거치는 것같이 언어도 중간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간단계를 우리는 상황이나 민족, 언어나 가치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대상이 낱말로 넘어갈 때 각각 달라진다. 이 중간적인 단계를 바이스게르버는 정신적인 중간세계라고 했고 정신적인 중간세계는 언제나 언어를 통해서 형성이 되므로 언어적인 중간세계라고 해도 된다.

4.2. 낱말밭

바이스게르버는 낱말의 내용규정이 기존의 의미론 *Bedeutungslehre*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³⁶⁾ 낱말의 내용은 외부에서 절대로 규정될 수 없고 사태를 통해서나 다른 언어를 통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언어들이 비로소 사람들을 위해 대상을 사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낱말 내용이 외부에서 파악될 수 없다면 언어자체에서 그 내용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이스게르버가 말한 낱말밭 이론이다.

36) Weisgerber 1927 참조.

이 낱말밭이라는 개념은 요스트 트리어의 교수자격심사논문에서 기인한다.³⁷⁾ 그렇지만 이러한 낱말밭이라는 생각은 이미 소슈르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소슈르에 의하면 언어는 체계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체계의 분지들은 모두 다 서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것의 가치와 적용은 다른 것의 동시대적인 현존으로부터만 생겨난다.³⁸⁾ 물론 이러한 생각은 훈볼트의 “개념의 망”³⁹⁾이라는 용어에서 좋은 전형을 찾을 수도 있다.

소슈르에 의하면 개념은 가치이다. 언어기호체계는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호관련이 있고 개념은 가치이다.⁴⁰⁾ 우리가 포착하는 모든 것은 미리 주어진 개념이 아니라 체계에서 생겨나는 가치이다. 이 가치개념은 화폐의 가치와 같은 개념이다. 즉 1000원으로 빵 하나를 살 수 있다면 빵과 천원은 같은 가치이다. 어떤 기호가 갖는 개념이나 음성재료는 그 기호의 주변에 있는 것의 개념이나 음성재료에 의해 더 구별되는데 그 해당 밭의 위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⁴¹⁾

바로 이처럼 바이스게르버의 낱말내용의 규정도 소슈르의 가치개념과 그 패를 같이한다. 기존의 의미론에서 말하는 낱말의 내용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는 낱말내용규정의 여러 가지 요인을 설정한다. 그 중에서 특히 소슈르의 언어의 체계를 통한 낱말내용규정에 의지한 낱말밭의 개념을 통해서 그는 낱말의 내용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낱말의 내용은 언제나 낱말밭에서 그 위치로부터 생겨난다. 이것이 그가 말한 낱말밭의 중심생각이다. 예를 들어 그는 “삶의 종말 sterben”이라는 영역의 낱말들을 하나의 낱말밭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⁴²⁾ 더 나가서 의미가 애매한 “veranstalten, durchfuehren, halten, abhalten” 등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stattfinden machen”이라는 밭에서의 가치로 설명하고 있다.⁴³⁾

이러한 낱말밭의 예를 들어 바이스게르버는 낱말의 내용은 항상 어떤 해당

37) Trier 1931 참조.

38) Saussure 1967: 136 이하.

39) Humboldt VII: 1, 60.

40) Saussure 1967: 131 이하.

41) Saussure 1967: 143 이하.

42) Weisgerber 1962: 184 이하.

43) Weisgerber 1962: 196, 199 이하.

낱말밭의 위치가치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바로 소슈르의 “언어를 체계”로 보는 견해와 위치가치 등의 사상과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5. 나오는 말

바이스게르버는 주로 훙볼트의 언어철학과 인류학 그리고 카시러의 상징이론에 의지하여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미세한 전문용어나 필요한 어휘분야에서의 접근방식은 당시에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소슈르의 책 “일반언어학강의”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비록 바이스게르버가 자신의 “교수자격심사논문”에서 초반에 소슈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다시 비판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초기의 그의 작품 안에서 우리는 소슈르의 수용 흔적을 매우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슈르는 언어를 유기체로 보지 않지만 바이스게르버는 언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취급한다. 더욱이 소슈르의 랑그와 파롤의 구별을 바이스게르버는 학문적인 구별일 뿐 실제로는 전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소슈르는 언어기호는 개념과 대상을 연결시켜준다고 하였으나 바이스게르버는 개념이 대상과 기호의 연결을 통해서 뿐 아니라 감각적인 인상을 통해서도 발생된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스게르버는 언어재를 문화재로 파악하는 소슈르의 의견에는 동조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출간된 “모국어와 정신형성”이라는 독백에 가까운 바이스게르버의 저서에서도 비록 교수자격심사논문보다는 적을지라도 역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슈르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어기호를 시니피앙과 시니피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언어를 단순히 언어로 보지 않고 네 개의 다른 규모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기, 개인의 언어재, 모국어, 인류보편적인 언어능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독어에는 없는 구분이었고 소슈르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내용중심 문법의 교과서인 “내용중심문법의 기본원리”에서도 바이스게르버는 어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중간세계를 설정하면서 소슈르의 기

호관에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날말밭이라는 이론을 설정하여 설명할 때도 소슈르의 가치개념을 매우 강하게 수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현

- Ehlers, K-H. (2000): *Saussure-Lektüre in Weisgerbers Habilitationsschrift*, Interpretation und Re-Interpretation K. Dutz(Hg.). Münster. 51-66.
- Gipper, H. (1984): *Leben und Werk Johann Leo Weisgerbers*, in : Leo Weisgerber zum 85. Geburtstag, H. Gipper(Hg.), Münster.
- Glinz, H. (1986): *Vierzig Jahre Umgang mit dem 'Cours' von Saussure*, in : Zeichen und Verstehen, Akten des Aachener Saussure-Kolloquiums. 1983. L. Jäger. Aachen. 151-184.
- Humboldt, W. v. (1903-36): *Gesammelte Werke VII*. Berlin.
- Saussure, F. de (1967):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Berlin.
- Thilo, U. (1989): *Rezeption und Wirkung des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Tübingen.
- Trier, J. (1931): *Der deutsche Wortschatz im Sinnbezirk des Verstandes*. Heidelberg.
- Wartburg, W. (1931): *Das Ineinandergreifen von deskriptiver und historischer Sprachwissenschaft*, in : Berichte der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Philosophie - Historische Klasse. 83:1-23.
- Weisgeber, L. (1927): *Die Bedeutungslehre - ein Irrweg der Sprachwissenschaft?*, in: Germanisch-Romanische Monatschrift 15. 161-183.
1950, *Vom Weltbild der deutschen Sprache*. Düsseldorf.
1953, *Die inhaltbezogene Grammatik*. Düsseldorf.
1954, *Die sprachliche Erschließung der Welt*. Düsseldorf.
1962,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Düsseldorf.
1962,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 Düsseldorf
1956/57, *Die Erforschung der sprachlichen Zugriffe*, in : WW 2.
1961, *Zur Entmythologisierung der Sprachforschung*, in : WW Sonderheft 3, 30-50.
1963, *Die wirkungbezogene Grammatik*, in : WW 5.

- 1963,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 Düsseldorf.
1964, *Zur Grundlegung einer ganzheitlichen Sprachauffassung*, H. Gipper(Hg.). Düsseldorf.

Zusammenfassung

Saussures Einfluss auf die Sprachtheorie Weisgerbers

An, Cheung-O(Korea Univ.)

In diesem Aufsatz geht es um die Frage, womit Leo Weisgerber seine Sprachtheorie entwickelt hat. Er wurde von mehreren Theoretikern und Wissenschaftlern beeinflußt, wie z. B. Wilhelm von Humboldt, Ernst Cassirer, Wilhelm Wundt, Ferdinand de Saussure usw. Aber in einigen besonderen Bereichen seiner Sprachtheorie wurde er besonders von F. de Saussure stark beeinflußt.

Leo Weisgerber hat sehr viele Aufsätze und Bücher geschrieben. Aber darunter gibt es einige Werke, die seine Sprachtheorie zusammenfassend darstellen. Sie sind die folgenden: seine Habilitationsschrift(1925),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1929),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1962).

Wir haben daher versucht, zu erforschen, welchen Einfluss Saussure auf diese Werke Weisgerbers ausgeübt hat.

In der Habilitationsschrift konnten wir herausfinden, daß Weisgerber die Ansätze Saussures kritisierend aufgenommen hat. Während Saussure Sprache nicht als einen Organismus betrachtet, hält Weisgerber Sprache für einen lebendigen Organismus. Darüber hinaus ist nach Weisgerbe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langue* und *parole* unnötig.

Leo Weisgerber hat in dem Buch "Muttersprache und Geistesbildung" seine Zeichen-Theorie zusammenfasst. Da war er damit einverstanden, daß ein Zeichen aus signifiant und signifie besteht. Außerdem unterscheidet er Sprache, ähnlich wie Saussure, wie folgt : das Sprechen, der Sprachbesitz des einzelnen, Sprache als Kulturbesitz einer Gemeinschaft, das allgemein menschliche Prinzip Sprache im Sinne der für die Menschheit kennzeichnenden Sprachtaetigkeit.

In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stellt er dar, wie die Untersuchung der Sprachinhalte durchgeführt werden soll. Nach ihm ist ein Wortinhalt immer

erklärbar, durch ein Wert in einem Wortfeld. Dieser Begriff "Wert" entstammt vom "valeur", den Saussure gemacht hat. Aber die Zeichentheorie Weisgerbers ist ein bißchen anders geworden. Während Saussure ein zweidimensionales Zeichenmodell (signifiant und signifie) aufstellt, stellt Weisgerber ein dreidimensionales Zeichenmodell dar, das aus drei Elementen (Lautform - geistige Zwischenwelt - Außenwelt) besteht.

Aus diesen Ergebnissen der Untersuchung können wir schließen, daß Weisgerber mehr oder weniger von F. de Saussure beeinflusst wurde.

[검색어] 바이스게르버, 소슈르, 모국어, 중간세계
Weisgerber, Saussure, Muttersprache, Zwischenwelt

안정오

339-7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독일문화정보학과
anco@korea.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26
논문 심사일: 2004. 11. 26